

소설

몽유 금강

김대식 지음

47년생으로 대우재단 전문위원을 지낸 직장인이 전업작가로 나서 펴낸 첫 장편소설. 늦깎이 작가의 이 작품은 40대 후반의 사진 작가가 겪는 예술적인 고뇌와 좌절을 다룬다. 컴퓨터 세대의 등장으로 직장과 가정에서조차 존재의 위기마저 맞고 있는 40대 직장인들의 갈등과 위기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금강산이라는 상징을 통해 분단과 통일문제를 아울러 보여주는 남성성이 강한 작품이다. (515-2000)

민음사/A5신/238면/5500원

전전지(電戰誌)

정건희 지음

본격적인 컴퓨터 소설로 한국과 일본의 해커들이 한일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집전을 벌인다는 해커소설. 95년말부터 PC통신에 <동급(東急)해커>란 제목으로 연재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는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 소설은, '컴퓨터 전쟁소설'을 뜻하는 제목처럼 해커들의 세계를 리얼하게 그리면서 한일 정보전의 숨막히는 대결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 (3672-6057)

한뫼/A5신/각 340면/각 7000원

말없는 놀이꾼들

김종성 지음

지난 86년 제1회 동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단단한 뒤 탄탄한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의 세번째 창작집. 6편의 단편과 2편의 중편으로 구성된 이 작품집은, 무언의 가면극인 강릉관노가면극 놀이와 월남 파병 병사의 고엽제 문제를 결합시킨 표제작 <말없는 놀이꾼들>과 광주 민중항쟁에 참여했던 형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어 명동거리의 인간 마네킹이 된 사내를 그린 <내걸린 사내> 등의 작품이 실렸다. (362-8900)

풀빛/A5신/300면/7500원

말빌 (전2권)

로베르 메를리 지음/이재형 옮김

지난 94년 프랑스 서평지 <100 livres en un seul>지가 선정한 '100권의 책'에 선정된 이 작품은, 핵폭발로 인류문명이 파괴된 후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원시의 환경에 그대로 내던져진 일곱명의 생존자가 새로운 도덕과 제도를 세우고 또 다른 생존자들과 투쟁하는 과정은 우리들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가는 공쿠르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원로작가. (732-1251)
책세상/A5신/각 400면 내외/각 8000원

블랙 아이스

마이클 코넬리 지음/이종인 옮김

LA 한복판에서 마약전담 형사가 변사체로 발견된다. 시신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발견했다"란 유서가 발견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지대를 무대로 광범위한 마약 커넥션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 뛰어난 형사 해리 보슈는 사건에 뛰어든다. <LA 타임즈>의 사건담당 기자 출신의 작가는 처녀작 <블랙 에코>로 에드거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588-0833)

시공사/A5신/448면/7500원

인도의 사랑 (전 2권)

카트린 클레망 지음/이세욱 옮김

독립의 와중에서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 없는 운명적 사랑을 불태웠던 인도의 수상 내무와 영국의 부왕비 에드위너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그들의 사랑을 축으로 당시의 인도사를 그려낸 작가는 철저한 고증과 자료조사로 소설로 읽는 역사서를 서술하고 있다. 간디의 전기를 쓴 역사가이기도 한 작가의 이 작품은 베르베르의 <개미>를 번역한 이세욱씨가 옮겼다. (739-7741)

고려원/A5신/각 390면 내외/각 8000원

숫컷

레이몬드 카버 지음/안중설 옮김

총 3권으로 기획된 카버의 전집 가운데 제2권째인 이 작품집은 같은 내용의 영화제목이기도 하다. 이 책은 작가의 후기작과 초기작을 중심으로 엮은 것으로, 그 가운데 후기작에 속하는 <심부름>은 안톤 체홉의 죽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결국 자신을 그린 것이나 마찬가지. 또 초기작 중 <발밑에 흐르는 깊은 강>은 일본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카버에게 반하게 된 작품이었다고. (335-7353)

집사재/A5신/344면/6500원

숨은 사랑찾기

제인 앤 크렌츠 지음/노순욱 옮김

17권에 이르는 작품이 발표와 함께 연속해서 <뉴욕 타임즈>지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작가의 18번째 작품. 적나라한 관능묘사에도 불구하고 외설스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평

을 듣는 이 작가의 독특한 묘사가 역시 돋보이는 이 작품은,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와 미스터리가 교묘하게 결합됐다.

인생의 낙오자들이 격리되다시피한 미국의 서북부 한적한 마을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751-9311)

중앙일보사/A5신/388면/6500원

비소설

슬픈 외국어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김진욱 옮김

<상실의 시대> 등의 작품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수의 고정독자를 확보한 작가가 4년여간의 미국생활에서 얻은 문명 비평적 심층분석과 자전적 신변 이야기를 적은 철학적 명상 에세이 모음. 유럽 각국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고통스런 방랑생활을 했던 한 작가의 내면에 담긴 고민과 방황의 그림자를 에세이로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모두 18편의 글에서 하루키 특유의 문체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 (736-9467)

문학사상사/A5신/280면/6000원

해리의 발견 (전2권)

황경식 엮음

미국 몽골리어 대학 부설 어린이 철학개발원(I.A.P.C)에서 펴낸 철학소설을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평설을 덧붙여 펴냈다. 이 책은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료로 세계 1천여 학교의 교재로 채택돼 우수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이 책은 '소설'과 '평설' 부분으로 양분되는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해리는 같은 반 아이들과 일상생활에서 느낀 의문을 논리적인 대화로 풀어나간다. (733-5045)

열림원/A5신/272면 내외/각 6000원

푸슈킨이 살아있는 나라, 러시아는 어떤 이웃인가

이인호 지음

러시아사 전공학자로 주 핀란드 대사로서 첫 여성대사가 된 이인호씨가 제정러시아 시대로부터 페레스트로이카에 이르는 러시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되짚어 보고 전망한 책. 사상,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거장들을 끊임없이 배출한 대국 러시아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비록 지금은 개방 이후 가난과 혼란으로 그 세력이 주춤한 상태지만 저자는 러시아를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388-2158)

정우사/A5신/192면/5000원

존재의 작은 이유들

로마노 바탈리아 지음/윤혜신 옮김

94년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레반토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작가는 이 작품의 실제 주인공인 실비아란 여인으로부터 그녀의 사랑이야기를 듣고 한편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엮어내고 있다. 이혼의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한 여인에게 다가온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서정적인 흑백 풍경사진들과 함께 가슴으로 다가온다. (711-7821)

자작나무/A5신/182면/5500원

많이 묻는 사람이 많은 대답을 한다

이청승 지음

창립 이후 한번도 가격인상을 하지 않고 5년간 매출신장을 상위권에 지속시키며 정가 판매제도를 고집해 화제의 기업으로 떠오른 화장품 회사 한국 POLA의 사장 이청승씨의 자전적 에세이. 지난 86년 6억원의 소자본으로 일본폴라와 5대5로 합작 설립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저자는 의외로 홍익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화가. (775-0013)

숲과꿈/A5신/276면/6000원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크리슈나무르티 지음/김정우 옮김

한국크리슈나무르티센터의 설립을 기념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지난 79년 번역 소개된 바 있는 책이다. 사재를 모두 버리고 친지들의 주선으로 세계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며 연설회와 대화의 모임을 진행하다가 지난 86년 92세의 나이로 이승을 떠난 한 자유인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 특히 크리슈나무르티의 여러 책 중 그의 사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737-9665)

한국크리슈나무르티센터/A5신/224면/5000원

사람을 좋아하는 남자 이덕화

이덕화 지음

2세 연기자로서 25년간의 연기생활을 통해 대표적인 한국의 남자 텔런트로서 확고한 자리를 굳힌 이덕화씨가 정치일선으로 나가기 전 그동안의 연기생활과 삶을 중간점검하는 자세로 펴낸 책. 방향의 유년시절, 연기자로서의 성공, 이어 닦쳐온 교통사고와 화려한 재기가 반복된 40대 중반에 이른 한 연기자의 삶의 흔적과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힌다. (927-2831)

태일/A5신/332면/5000원

국문

오재학 지음

한 역술인이 한반도와 인류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예언서. 제1장에서는 자신이 역술인으로 자라온 과정을 그리고 있다. 2장에서는 98년 11월을 통일월년으로 점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세계의 동향을 예측하고 있다. 또 4장에서는 통일이후까지의 경제 전망을, 5장에서는 우리의 사회적 변화와 문화계의 전망을, 6장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과 그 진행과정을 예측한다. (3272-8967)

책만드는집/A5신/256면/6000원

무덤 파는 기독교인

아스 쿠니이스 지음/이종필 옮김

“기독교는 현대세계의 문명을 형성하는데 절대적 공헌을 했지만, 현대세계는 여러 면에서 기독교를 해쳐, 결국 기독교는 자신의 무덤을 파 온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이 책은, 현대문화가 서구교회를 어떻게 몰락시켰는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자는 사회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문화를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비평한다. (3141-6650)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생텍쥐베리 지음/이상각 엮음

〈어린왕자〉의 작가의 또다른 대표작 〈성

체〉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적 성격으로 각색한 책. 방대한 원작을 추려 일반독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이 책은, 작가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다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자신을 구해준 베두인 대상을 모델로 쓴 작품으로 알려져 더욱 신비로움을 더한다. 난해하고 너무 거칠어 과연 생텍쥐베리의 작품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일화도 있다. (323-4403)

움직이는책/A5신/264면/6000원

기적의 멜라토닌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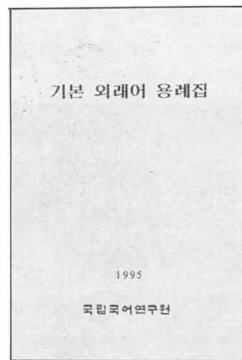
윌터 피에르파올리 외 지음/임종석 옮김
멜라토닌은 두뇌 깊은 곳에서 주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간의 일상적 계절적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즉 우리 신체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 이 책은 멜라토닌이 노화방지는 물론 면역계 세포인 T림파구의 활동을 강화시켜 암이나 심장병 등과 같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험의 결과와 효능, 그리고 복용법이 소개됐다. (778-4179)

세종서적/A5신/296면/7500원

자료집

생활 속 외래어의 뜻풀이와 쓰임새

기본 외래어 용례집



외국어가 국어로 굳어진 것이 외래어. 외래어는 요즘과 같이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

크로 움직이고 인터넷 등의 통신망에 의해 하나로 묶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그 양이 많아졌고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이 책은 국민의 언어생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래어를 ‘기본 외래어’로 선정해 간단한 뜻풀이와 함께 그 쓰임새를 보여주고 있는 소사전이자 용례집으로 읽힌다.

이 용례집에 실린 외래어는 이미 국어로 정착되어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편히 쓸 수 있는 좋은 말을 가려낸 것으로, 이와는 달리 외국어로 간주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없는 말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별표시와 함께 바꿔써야 할 마땅한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미네럴 워터는 광천수나 생수 탄산수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것. (779-4810)

국립국어연구원/A5신/80면/비매출

화제의 책

사라져가는 옛 풍습 담은 우리 동요모음

임석재 민속동요 (전4권)



교육학자이자 원로 민속학자가 3백여편의 동요를 네권에 모았다.

사라져가는 풍습과 옛이야기들이 가사 속에 담겨 있어 민속동요로 이름 붙여진 임석재씨의 동요는,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방언의 절묘한 사용이 돋보인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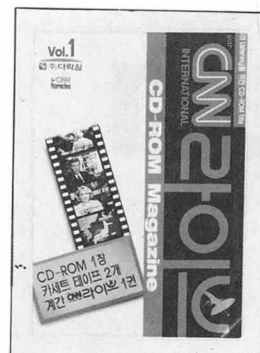
이 동요집의 또다른 특징은 설, 대보름, 등지 등 명절과 보리타작, 절구질 등 농촌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으며 구전설화나 민요풍의 음률을 전승, 그 자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1권 〈날이 됐다〉 2권 〈씨를 뿌리자〉 3권 〈봄아 어서 오너라〉 4권 〈동요를 부르자〉로 구성된 이 동요집은, 다양한 사물을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730-2311)
고려원미디어/A5신/각 130면 내외/각 5000원

이색출판

CD 롬으로 익히는 흥미로운 영어

CNN 라이브



세계적인 뉴스전문 방송사 CNN사와의 저작권 계약에 의해 발행되고 있는 월간지

〈CNN 라이브〉의 3개월치 내용 중에서 선별해 재구성한 영어 전문 CD-ROM 타이틀로 3개월마다 발행될 예정.

이 CD-ROM 타이틀은 ‘헤드라인 뉴스’를 비롯해 ‘사이언스 앤 테크놀러지’ 등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을 생생한 CNN의 동화상과 함께 볼 수 있게끔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타이틀에 수록된 모든 종류의 기사를 제목별, 주제별, 나라별, 비디오별로 검색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기능과 주요 국가별 정보도 실려 있어 기사 이해에 도움을 주게끔 배려했다. CD-ROM 타이틀과 함께 책,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2개가 함께 제공된다. (736-2031)

다락원/A5변형/196면/50,000원

